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 -참척(慘慼) 고통과 화해-

김 가 득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12명의 부모를 심층면접 하였으며 속담, 소설 등의 실존적 탐구를 사용하였다.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낮이 나감, 참척적인, 유형의 땅과 정지된 생애 시간, 고통을 위로받고 싶음, 반쯤 껴맨 상처로 살아지는 날들'로 드러났다.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에 부모 스스로 사회적 고립화를 자처하고 자살유혹, 우울, PTSD 등의 애도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화적 특성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자살의 원인을 전적으로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자살은 집안체면을 깎는 부끄러운 수치라고 보며, 자살을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군인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자살 유가족, 부모의 경험, 한국 부모의 특성, 해석학적 현상학

1. 서론

미국의 대문호 헤밍웨이(Hemingway)의 50주기 기일(忌日)에 그의 고향인 아이다호주(州) 오크파크(Oak Park)에서는 어떠한 기념식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작가가 자살한 날을 기념하지 않으려는 입장 때문이라고 헤밍웨이 재단은 밝혔다. 유명 연예인 남매를 자살로 보낸 어머니는 사건 이후 흰색 옷만을 입고 있으며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조차도 미안해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이 살던 집과 차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그 유가족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필자의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IMF 경제 위기로 시작된 자살은 최근 사회적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따른 베르테르 증후군(the Werther Effect)¹⁾로 인해 자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숨진 사람은 15,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자살자와 그에 따른 유가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통계청, 2011).

자살자는 유가족의 옷장에 자살자의 심리적 해골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표현될 만큼(Cain, 1972) 자살자 유가족들은 다른 사별 가족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남겨진 가족의 분노, 수치감, 죄책감 등의 심리적 고통은 일반 사별가족보다 더 강렬하고 한층 복잡한 비탄(complicated grief)의 애도 과정이 된다. 또한 유가족은 가족의 자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그에 따른 후속 자살로 연결되기도 한다(Pompili et al, 2008). 특히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모로서의 자격 미달이었다는 자기비난 때문에 남은 삶을 견뎌내기 어렵다.

자녀의 자살은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자녀의 자살 사건 후 35년 까지도 심각한 우울증과 건강문제가 있음을 연구한 사례나(Rogers et al., 2011: 203 재인용), 이들이 떠난 후 아버지가 일 년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선행연구(Carson and Henry, J., 2010) 등이 있어 자녀의 자살은 부모의 전 생애를 뒤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녀의 자살은 부모에게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가정 해체나 부모의 후속자살을 야기할 수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부모 스스로의 자기 낙인으로 인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후 예방적 접근은 물론, 실태 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자살자 수와 이에 따라 급증하는 유가족의 문제는 이제 생명존중, 건강한 가족, 사회적 안녕을 위해 함께 합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부모를 두고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는 최고의 불효로 치고, 악상(惡喪)이라 한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참혹한 근심을 얻는다 해서 참척(慘慼)²⁾이라고 표현하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상명지통(喪明之痛)³⁾이라고 표현한 단어도 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아픔은 빛을 잃어 천지가 캄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예로부터 자녀를 잃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를 잃으면 청산(靑山)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더구나 그 자녀의 상실이 자살이었을 때는 가슴에조차도 묻을 수 없음이 우리 문화의 정서이다.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오랜 세월 제도권에 의해 은폐되고 금기시되어 왔으므로 유가족은 자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은폐하여 학문적인 연구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가족 수와 유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은 단순히 한

1) 기존의 국내 문헌에서 'the Werther Effect'를 '베르테르 효과'로 사용해왔으나, 국립국어연구원에 문의결과 '효과'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단어가 의미하는 자살의 파급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므로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사용해야함이 적합하다는 답변이었음. 따라서 본문에서는 '베르테르 증후군'으로 사용함.

2)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로 부모의 참혹한 근심을 의미함.

慘(참혹할 참) 慼(근심할 적)

3) 공자의 제자 자하가 자식을 잃고 극도의 슬픔에 시력을 잃은 것에서 유래된 단어임.

가정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남겨진 유가족은 자살자와의 관계에 따라 슬픔과 애도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이를 세분화하여 연구하지 못했다. 특히 국내 자살 유가족 관련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부자(父子)중심의 가족관계 특성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자살은 다른 친인척에 비해 부모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부모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 유가족 중 부모만의 경험을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자살자의 부모라는 극단적인 경험은 각 부모의 인지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특수한 경험이다. 부모의 내면적 경험의 본질(essence)을 '사실 그 자체'로 바라보고자 내부자 관점(emic)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부모경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통찰하기 위해 속담과 소설 등 다양한 현상학적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들이 죄책감, 가정체계의 위험성, 자살 유혹, 사회적 고립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개별화된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문화 속의 자살과 가족문화

우리 민족은 신화시대부터 타고난 수명(壽命)대로 사는 것을, 즉 천명(天命)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다. 자살은 타고난 천명(天命)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배영기, 2006: 456)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살에 대한 관점은 시대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역사학자였던 김부식은 『진삼국사표(進三國史表)』에서 부모와 자식은 각기 자신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가정의 상하조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리왕 때 태자의 자살 사건에 대해 “아비는 아비노릇을 못했고, 아들은 아들노릇을 못하였다”고 하여 양비론(兩非論)을 제기(조동걸 외, 1994: 73)함으로써 자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조선시대 역시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의 개념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천명을 거역하며 목숨을 끊는 자살은 더욱 죄악시되고 금기시되었다.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체면 중시의 문화는 충과 효를 위한 자살을 제외하고는 가문의 치욕으로 치부하여 가능한 한 은폐하였으므로 문헌상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전통 가족문화는 서구의 '나'보다 가족성원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화목한 가족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한다(Triandis, 1989; 송성자, 2001 재인용). 부부중심의 서구문화에 비해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온 부자중심의 문화였다. 따라서 가족은 정서적으로 매우 밀착되어 있으며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시 되어왔고, 부모 특히 가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보았다. 한국인은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려 노력해왔다(송성자, 2001:

440). 이러한 체면 중시의 문화는 내면적 정서를 드러내어 표현하지 말고 내부에서 되새겨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왔다. 즉 다정, 슬픔, 분노, 적개심의 감정조차 다스려 삼키라고 가르쳤다(김열규, 2004: 90).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자녀의 자살을 가족의 체면을 깎는 부끄러운 행위로 인식하게 했고,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슬픔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 삼켜야만 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는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가족의 체면을 중시하며, 부모 자녀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하며, 자녀를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자살 유가족 관련 선행연구

서구의 유가족 관련 연구는 주로 유가족이 겪는 죄책감,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고(Worden, 1991; Fine, 1997; Knieper, 1999; Callahan, 2000; Mitchell et al, 2009), 사회의 부정적 편견과 낙인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있다(Worden, 1991, Fine, 1997, Knieper, 1999; Jordan, 2001, Cvinar, 2005, Peters, 2006). 특히 낙인(stigma)은 자살 유가족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했다(Cvinar, 2005: 20). Cvinar의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다른 종류의 사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McIntosh(1992)는 두 집단 사이의 낙인감은 차이가 별로 없으며 사회적 낙인은 사고 후 스트레스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살유가족 중 부모들이 배우자보다 죄책감과 수치감을 강하게 경험하고(Reed and Greenwald, 1991),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실감은 배우자 상실로 인한 고통보다 더 강하고 더 지속적임이 연구되고 있다(이근무·김진숙, 2010: 112 재인용; Leathy, 1992; Stroebe and Schut,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실감과 고통이 자녀나 형제보다 깊고 길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자살 자녀 부모의 경험만을 선택한 이유를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자녀의 자살은 남겨진 다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도 있다. 부모는 남은 자식도 자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남겨진 자녀를 과잉보호하기도 하고, 때로 남겨진 아이를 죽은 아이의 대체 역할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이문희, 2004; Poznanski, 1972; 이범수, 2009: 262 재인용).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연구경향으로 자조집단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Feigelman and Feigelman, 2008; Cerel, Padgett, and Reed, 2009). 유가족은 수용적 분위기에서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역할 모델을 발견한다(Garvin, 1997).

이처럼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유가족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유가족 관련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감과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족은 자살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학자는 연구 참여자 확보의 난이성으로 인해 연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suicide survivor라는 단어가 현재 자살 유가족과 자살 생존자라는 용어로 혼용하여 쓰이고 있을 만큼 연구의 축적이 미흡하다. 특히 사회복지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극히 최근에만 시작되고 있다. 윤명숙·김가득(2010)의 연구는 농촌지역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죄책감과 자기 낙인을 밝히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역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의 경험을 배제한 연구가 되었다. 박지영(2010)은 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를 잃은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의 경험을 통해 그들 가족의 사회적 고립화 현상을 '외딴 섬으로의 귀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유가족의 사회적 고립화를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섬'으로 표현한 또 다른 연구(이근무·김진숙, 2010)는 5명의 참여자를 배우자, 부모, 형제 각각의 사례연구 형식으로 고찰함으로써 사례 간 분석을 하지 않아 유가족의 특수성 속의 보편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죄책감과 고통은 배우자의 고통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이라는 선행연구(Baume, 1990: 285) 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유가족을 구분하여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의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여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연구 참여자를 한 가족만이 아니라 다수 확보하여 자살 유가족 부모 경험의 보편성을 발견하고자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와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대표성이 아니라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즉 적절성과 충분함의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신경림, 2000). 자살 자녀의 부모로서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영원히 물어버리고 싶은 사실을 끄집어내야 하는 괴로움의 경험이며, 자살자의 부모라는 사실을 공론화시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다. 죽음이나 자살을 금기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상 적절성을 갖춘 연구 참여자 확보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어머니를 첫 인터뷰 한 후 다음 약속을 예약한 다음 날, 아버지한테서 “누구는 박사학위 논문이 중요하지만, 아들 잃은 내 아내는 신(神)도 아니고 초월자도 아닌 자식 잃은 한 어미이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요” 라는 메일이 오기도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심층 인터뷰에 응해준 부모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열두 명중 네 명은 자살자의 아버지이고, 여덟 명은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 F는 두 딸을, 연구 참여자 H는 두 아들을 자살로 잃었다. 연구 참여자 J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인터뷰함으로써 11가족, 12명의 자살자의 부모를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오십대 이후이며 평균연령은 64세이다.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가 대부분이고, 이들 중 여덟 명이 도시에, 나머지는 농촌지역 거주자이다. 첫 번째 인터뷰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 후 경과기간은 10개월부터 16년이며 그 중 삼년 이내가 일곱 명이고, 나머지는 십년 이후이다. 11가족 중 2가정에서 자녀의 자살 후 2개월과 1년 이내에 각각의 아버지가 계속적인 음주로 인해 뇌출혈 등으로 자녀를 따라갔다. 자살자녀는 13명으로 이들의 나이는 16세 부터 42세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지연을 통한 의도적 표집과(purposive sampling)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자조집단 참여자 중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를 위해 10사례 이내를 선택할 것을 권한 Denzin과 Lincoln(1998)의 이론에 근거(장혜경, 2008: 157)하여 12명의 부모를 결정하였다.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연구 만남의 시작부터 참여자와의 신뢰관계(rapport) 형성에 특별히 신경을 썼고,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최초의 인터뷰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자기 방식대로 말하게 하였다.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고를 발견했던 당시 부모로서의 심정은 어떠했는지요? 부모로서 현재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요?” 등의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구자의 의도대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한 질문은 억제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맡기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면접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각각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까지 면접이 이루어졌다. 1회의 면접 시간은 대부분 두 시간 내외였으나, 한 수도권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한 번의 만남에 4시간 이상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하루를 모두 내주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장례식장 내의 커피숍을 면담장소로 지정해주어 연구자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 두 시간이 넘는 인터뷰 도중 연구 참여자는 감정이 격해지면 담배피우고 오겠다고 나가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되돌아와서야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었다. 상호신뢰와 공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심층인터뷰 하였고 동의한 대로 녹음하였다.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인터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보완질문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연구의 중반 이후 네 명의 유가족 어머니가 함께 모인 자리에 연구자의 주제 분석 결과표를 내어놓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더 솔직한 표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일부 수정을 원했다. 다시 수정되기를 위한 부분은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여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다.

2)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은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풍부한 ‘사실들’(체험, 현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과정인 네 가지 단계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첫째,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동기화된 현상에 주목하여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여 그 현상에 대해 ‘어떤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단계이다. 십년 전 연구자 집안의 한 아저씨가 안방에서 목을 매었다. 만취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가족 특히 배우자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했고, 오랫동안 자기학대를 하면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는

4)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자는 의도적 혹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택한다. 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의도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한다(유태균, 2005).

것을 지켜보았다. 배우자가 그렇다면, 부모 자녀는 친륜의 관계라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자살은 부모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질까?'라는 관심이 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둘째, '실존적 탐구단계'이다. 연구현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어원이나 관용어를 추적하고, 문학과 예술작품 등으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분석에 포함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한국부모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자녀 관련한 속담을 찾고, 소설에서 묘사된 자녀 상실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찾으면서 참적(慘慼)과 상명지통(喪明之痛)이라는 단어를 이해했다. 미술에서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찾아내면서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탐구한 실존적 탐구 자료는 분석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묘사된 언어를 노출하여 텍스트화하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주제를 분석하고, 언어적 변형구조를 통해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세분법⁵⁾을 이용하여 13개의 규명된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5개의 본질적 주제로 도출하여 부모 경험의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최종단계인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의 일상 언어로 제공된 다양한 경험예제를 인용하여 '글쓰기'하고 이를 다시 연구자가 해석한 것으로 '글 고쳐쓰기' 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현상학적 글쓰기를 van Manen 분석방법의 네 가지 실존체인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으로 분석하여 글쓰기하면서 요약 정리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의 성공은 학문적 엄격성을 갖춘 연구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학자에 따라 엄격성을 질적 연구의 아킬레스건, 즉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의 극복을 위해 연구자는 Padgett(1998)이 제시한 '다원화',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장기간에 걸친 관계의 형성' 등의 요건에 준거(유태균, 2005: 180-193)하여 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우선 '다원화'를 위해 심층면접 현장에서 부모님 외에 형제자매나 며느리를 함께 인터뷰하여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다원화를 꾀하기도 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종합DB를 검색하여 우리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자살가족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으로는 심층면접 후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을 전화와 차후 면접을 통해 재확인하고, 본질적 주제를 도출한 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토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 네 명이 함께 한 자리에 연구자의 본질적 주제 분석 결과표를 제시한 후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이 재확인 과정은 때로 자료가 실제 연구현장에서 수집된 것인지, 인위적으로 그려진 것인지를 검증하여 자료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장기간에 걸친 관계의 형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솔직하지 못함을 감추기가 어렵다. 만남의 초기단계에서 남겨진 자녀들의 효도자랑만을 하시던 한 어머니가 세 번째 만남 이후 가버린 자녀의 빛으로 인한 부모와 형제간의 갈등을 토로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5) 세밀한 글 읽기 방법으로 각 문장 혹은 문장다발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이 문장이나 문장다발이 기술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신경림, 2000: 145)

관계는 자칫 허위적 대화에 의존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해낼 수 있는 오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4) 실존적 탐구

(1) 속담의 묘사

어떠한 현상과 관련된 언어는 그 자체로 교훈적이다. 특히 속담은 입증하거나 검증할 필요가 없는 원초적이며 교훈적 언어이다(신경림, 2000: 103).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와 죽음 관련한 속담을 추적하여 부모 내면의 경험을 고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부모 상고에는 먼 산이 안 보이더니, 자식이 죽으니 앞뒤 산이 다 안 보인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자식이 죽었을 때 슬픔이 더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부모는 자식의 돌잔치와 결혼식 잔치를 성대해 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의 회갑잔치와 장례식장 손님 치르는 것을 잔치처럼 성대히 해야 한다.**

부모 자식의 도리를 일컫는 말로 자식은 천명대로 살아 부모가 마지막 가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임.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사람의 도리를 못한 불효자임을 의미하고 있다.

(2) 소설에서 묘사된 유가족 부모

한국사회에서 자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나타난 조경란의 소설 『복어(2010)』는 자살의 가족사, 자살 행위와 유가족에 대한 냉혹한 시선을 그리고 있다.

형이 자살한 후 아버지는 은퇴했다. 아버지의 잠재된 우울증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다.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변화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득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모두 다 까먹은 사람처럼.....

『복어』의 일부, 조경란(2010)

미국 작가 Ronda Chervin은 자신의 19세 아들이 자살한 아픔을 겪은 후 그가 겪은 분노와 좌절, 상실에의 고통을 『십자가로의 초대(2010)』를 저술하여 신앙을 통한 극복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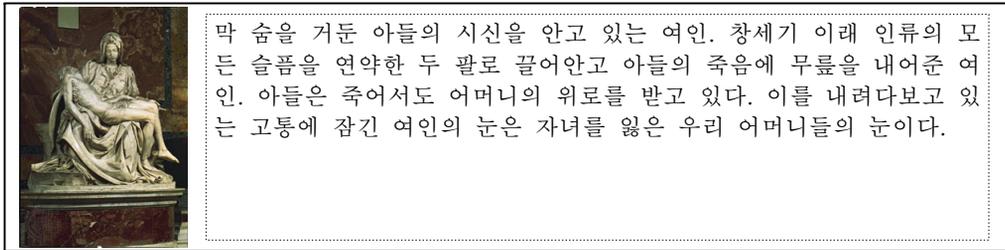
내 아들 찰스의 죽음은 우리 부부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 아픔은 예전에 겪었던 천식이나 암으로 인한 고통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후 꼭 일년을 우리 부부는 끝없이 울며 괴로워하며 우리 마음 속 깊이 박혀있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라는 칼날을 뽑아 없애려고 몸부림쳐야 했다. 슬픔 속

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는 이전에 했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전혀 다른, 그야말로 절절함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같은 것 이었다.

『십자가로의 초대』 서문에서, 김애선(2010)

(3) 미술(조각)

베드로 소성당의 조각상인 <피에타상>은 막 숨을 거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 아들은 죽어서도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지만, 어머니의 깨어 문 입술은 슬픔을 지나 연민에 닿아있다.



막 숨을 거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여인. 창세기 이래 인류의 모든 슬픔을 연약한 두 팔로 끌어안고 아들의 죽음에 무릎을 내어준 여인. 아들은 죽어서도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고통에 잠긴 여인의 눈은 자녀를 잃은 우리 어머니들의 눈이다.

<그림 1>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⁶⁾

4. 연구결과: 본질적 주제

주제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형식이므로 그것은 형태 없는 것에 형태를 주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본질적 주제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에 관한 주제

본질적 주제	규명된 주제	개념
1. 낮이 나감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너무나 큰 충격, 자식이 제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음, 죽어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길 간절히 바램, 하늘과 땅이 맞닿은 느낌, 충격으로 상명지통의 상황이 됨, 금방이라도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음.
	이승과 저승 넘나들기	제정신이 아님, 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느낌, 아이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다른 아이가 순간적으로 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옴, 아이를 낳으면 가벼린 아이가 다시 환생해 올 것 같음, 결혼도 못하고 간 자식이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라고 영혼결혼 시켜줌.

6) 피에타(Pieta, 1499):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대리석상으로 슬픔과 연민을 표현하고 있음. 1972년 파손되기 전에 찍은 사진. 로마의 St. Peter's 소성당. 출처: SCALA—Art Resource/EB Inc.

2. 참척 (慘慼) 죄인	신호를 눈치 채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죄책감, 자식이 우울증으로 괴로워한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함, 아 이가 전학을 원하고 유학 보내달라고 했어도 무시해버림, 죄진실 이야기를 자주 물을 때도, 카드빚을 많이 졌다고 걱정할 때도, 등 교 길에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할 때도 몰랐음이 죄스럽고 미안함.
	자식 잡아먹은 부모	자기 낙인, 수치감, 막바지에 도움을 청한 자식을 야단 쳐서 자살 을 재촉하게 만들, 자식이나 남편을 잡아먹는 사주라고 결혼을 반 대했던 시어머님의 말이 떠오름,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도 자 식 자살에 영향을 끼친듯해서 미안함, 자식이 카드빚을 저야할 만 큼 부모노릇을 제대로 못했음이 자식 자살의 원인이 되게 했음.
	가슴에도 묻지 못한 자식	아이의 물건을 아무것도 버릴 수 없음, 아이의 방에서 아이의 컴 퓨터를 하면서 살고 있음, 여전히 OO의 엄마로 불리우고 싶음, 헤어진 속옷조차 버리지 못함, 비가 오면 아들이 우는 것 같은 생 각이 들, 남은 식구 외식 나갈 때 가장 생각남, 다른 어머니가 자 녀와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을 보면 샘나고 부러움, 반찬을 무심 코 해놓고 보면 딸이 좋아하던 음식이라 못 먹고 울고만 있을 때 도 있음, 나중에 저승 가서도 부모노릇 하고 싶음, 아들의 생일날 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식은 여전히 가슴에 살아있음.
3. 유형(流刑) 의 땅과 정지(停止) 된 시간	내가 만든 감옥	사회적 고립화, 폐쇄된 공간 속에 멈추어 버린 삶, 사람이 싫고 무서움, 햇빛도 싫고 숨고만 싶음, 슈퍼마켓도 갈 수가 없음, 아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남, 폐인이 되어감.
	자살에 대한 유혹	자식 따라 가고 싶음, 죽음이 두렵지 않음, 죽음은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자식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 살고 싶어 사는 삶이 아님, 오늘은 살고 있지만 내일은 어 떨지 모름, 주위의 모든 물건을 자살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 각, 자식들이 찾을 수도 없는 곳에서 몰래 죽어버리고 싶음, 오랫 동안 먹어오던 약을 먹지 않으며 죽으려고 함, 자살 방법을 상세 히 공부함, 자녀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고 싶다는 생 각이 가장 간절함.
	사라져버린 미래	미래와 희망의 상실, 아이와 함께 만들어 갈 희망의 날이 사라짐, 삶의 의욕과 목표 상실, 집안 내의 제사도, 식구들의 생일상도 차 릴 수가 없음.
4. 고통을 위로받고 싶음	이해받고 싶은 고통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지만 위로받고 싶음, 아무도 내 고통은 헤아려주지 않음, 설움을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데도 털어놓을 곳 이 없음, 다양한 신앙 지도자를 만나보아도 위로해주지 않음, 가 족들 시선 때문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함, 위로받으러 갔다가 상 처받고 돌아옴.
	별로 보듯 하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음	수치감, 세상의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견디기 어려움, 자식죽인 어미라는 시선을 느낌, 가족들조차 집안의 수치로 생각함, 발가벗 겨진 느낌, 표정관리의 어려움, 친구조차도 흉상이라는 단어를 거 침없이 사용함, 동네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 아이가 아끼던 물 건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으나 부정한 물건으로 여길까봐 줄 수도 없음, 세상의 비난어린 시선을 견디며 살아갈 일이 암담함.
5. 반쯤 폐맨 상처로 살아지는	남겨진 자식에의 책임감과 두려움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두려움, 남겨진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 음, '죽지 말고 살아서 남겨진 다른 자식 부모노릇 해주어야 한다' 고 붙잡음, 실패한 부모로서 남은 자식 키우는 일이 자신 없어짐, 죽은 자식보다는 산 자식이 더 소중한, 어머니라는 이름은 자식 때

날들		문에 제 목숨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이 속상함.
	동병상련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음, 자조집단への 참석, 나 같이 불행한 사람이 나 만이 아니라 또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위로가 됨, 사건 후 몇 년의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이 부러웠음, 자조집단은 수호천사, '나만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주었음, 초점 잃은 눈빛, 자기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허망한 눈빛,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함.
	세상 속으로 되돌아오기	세월이 약, 산목숨은 살아야 함, 따라간다 말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님, 배우자와 친구들의 지지가 내 목숨을 지켜줌, 아들이 공부하고 싶어 했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아들을 이해하고 타인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함, 아이의 기일을 기억해준 종교적 공동체의 지지가 나를 살게 함,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잃고 나서 다른 것을 얻음, 스스로의 신체적 학대 속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버틸 힘을 찾아내면서 세상과의 화해를 시작함.

1) 낮이 나감

자식이 부모의 장례식장 손님 치르는 것을 성대히 해야 한다는 속담과는 달리 부모가 자식의 장례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식의 자살 현장을 발견하는 순간 부모는 충격으로 인해 낮이 나간다. 망연자실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버린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 상황을 맞는다. 아이와 함께 공유했던 16년, 또는 42년⁷⁾의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모든 시계가 멈추면서 기나긴 고통의 여행이 시작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했던 오랜 시간, 따스했던 공간, 부모 자녀의 관계가 모두 사라지는 시각이다. 부모는 환장을 하거나 반미치광이가 되어야만 시간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 정신이 아닌 부모는 때로 이승과 저승의 공간을 넘나들기도 한다.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모는 때로 제정신이 들면 아이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므로 의식적 무의식적 상태를 가장할 때도 있다.

(1)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낸 갑작스러운 사실을 부모는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이걸 꿈이라고 되뇌인다. 이는 자녀의 죽음을 부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심리상태이다. 눈앞의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인지 각막이 터져 피가 흐른다. 너무 충격이 심해 순간적으로 각막이 터져버린 상명지통(喪明之痛)의 상황이다. 하얀 포장을 덮어놓은 아들의 시신도, 냉동 창고에 들어가는 딸의 모습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눈이 표현한 것이다. '부모 상고에는 먼 산이 안 보이더니, 자식이 죽으니 앞뒤 산이 다 안 보인다'는 속담처럼 앞뒤 산만이 아니라, 보내야 하는 자녀조차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7) 자살 자녀의 나이가 16세부터 42세 이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시간이다.

그 새벽에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나오니까 친구가 담배 한대를 쥐요. 입에 무슨 순간 앞이 안 보여요. 순간적으로 눈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충격에 각막이 터져버린 거래요. 눈이 붓고, 피가 흐르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보였으면 싶고, 차라리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아들이 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A)

밭에 생강 심으러 갔는데 방송하더라고. 병원 실어갔다고 집에 오니까 이미 죽어서 화장장으로 갔데. 어떻게 그걸 믿어? 아침도 같이 먹은 아들이 말도 없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지금도 '어무니' 하고 문 열고 들어 올 거 같은데. (연구 참여자 H)

(2) 이승과 저승 넘나들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는 한 줌 재가 되어 흩어졌다. 부모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제 정신으로는, 온전한 이성으로는 견딜 수 없어 강한 부정을 해보지만,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부모는 때로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기도 한다. 꿈과 현실이 뒤섞이면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기도 한다.

남들은 나를 멀쩡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애가 가고 나서 백일 이전에는 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 들면 혼이 나갔다가 머리 내리고 고개 숙이면 혼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랬어요. 화장실을 삼개월간 못 갔어요. 살 떨리고 무서워서. (연구 참여자 B)

애가 떨어진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애가 옆에 와서 가만히 서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쏟아져 나올 때 간혹 우리 아이와 비슷한 아이가 보이면 순간적으로 혼돈해요. 우리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 C)

2) 참척(慘戚) 죄인

자살로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감정은 충격, 분노, 죄책감, 수치심 등이다. 자녀의 죽음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고 그 자살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심지어 자식 잡아먹은 죄인이라는 수치감은 어떤 형태로도 극복하기 어렵다. 일찍이 김부식은 자녀의 자살 사실에 관하여 부모도 부모노릇을 못하였고, 자식도 자식노릇을 못하였다고 하였다.

(1) 신호를 눈치 채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자녀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부모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아들이 갑자기 상담을 요청했을 때도, 딸이 갑자기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뛰어내리겠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신호였음을 몰랐다. 등교 길에 차로 데려다 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유약하다고 야단만 쳤을 때 아들은 친구들에게 담뱃불로 지짐을 당하고 있었다. 자식의 편이 되어주기는 커녕 도와달라는 신호조차 눈치 채지 못한 못난 부모였다.

그 해 2학기 때 최OO이 죽었잖아요. 이후 세 달 가까이 계속해서 최OO 이야기를 했어요. '목욕탕에서 어떻게 죽었지?' 목 땀잖아. '어디다 땀지?' '목매면 발이 땅에 닿을텐데... 등등. 하루는 화장대의 자를 베란다에 내놓고 그 의자 위에 올라서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고 해요. 그 때 눈치 챌어야 했는데...

(연구 참여자 B)

아침마다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달라는 걸 야단만 쳤어요. 사내 녀석이 왜 차를 태워다 달라는냐고. 학교 가는 길에 괴롭히는 애들이 겁이 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야단만...

(연구 참여자 J)

(2) 자식 잡아먹은 부모

옛 우리말에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를 가리켜 '자식 잡아먹은 년, 새끼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이 있다. 참 무서운 말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앞세우고 싶을까마는 세상은 그렇게 말해왔다. 본 연구의 부모들도 자녀의 죽음을 부모 잘못으로 돌리면서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도 썼다. 자식을 앞세운 네 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나들이를 했을 때 연구자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자식 잡아먹은 년, 팔자 더러운 년'이라는 표현이었다. 도대체 자기 팔자가 어떻게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어 사주팔자 공부를 배우고 있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부모들은 '자식 잡아먹은 부모'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확대하고 있었다.

사고하고 자살은 참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고는 일단 핑계를 댈 구실이 있고 원망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은 아들을 죽게 만든 나 밖에는 공격 대상이 없어요.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내 책임이고 내가 바로 공격대상이고 원망대상이 되는 거죠.

(연구 참여자 A)

큰 딸 가고, 닳새 뒤 작은 딸 가고, 남편이 또 두 달 만에 따라가는데 내 팔자가 이게 무슨 팔자인가 싶었어요. 자식도 잡아먹고, 남편도 잡아먹고..... 참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무슨 팔자인가 싶어 그때부터 사주 공부하러 다녀요.

(연구 참여자 F)

(3) 가슴에도 묻지 못한 자식

자식을 앞세우고 세상에 낫부끄러운 부모가 되어 서둘러 아이의 재를 강물에 띄워 보냈지만, 마음으로 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묻었다. 아니 가슴에도 묻지 못했다. 부모는 가버린 아이의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여 기억 속의 '미라 만들기'나 소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며 자식의 방을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부모는 박물관이 된 아이의 방에서 무심코 아이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아이를 생각하며 꿈꾸고, 죽은 아이가 부모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와 접촉되어 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식이 쓰던 어떤 것도 처분할 수 없다. 심지어 낱아서 구멍 난 속옷도 버리지 못한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고 간 자식이지만 부모는 자식의 한 줌 삐조차도 흘러 보내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네가 들어갈 산소자리 밑에 묻어주어 저승에서도 여전히 부모노릇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유난히도 흥시를 좋아했던 이들은 16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가을 첫 흥시만 보면 되살아온다. 묻어하지만 가슴에도 묻을 수 없어 함께 살고 있다.

집 사람은 하루 종일 아이 방에서 살아요. 아무도 안 만나고 핸드폰의 사진 들여다보고, 저장되어있는 메일 들여다보고, 잠도 그 방에서 자요. 내 핸드폰에 아이 번호 저장되어 있는데 번호 누르면 여전히 신호가 가요. 그런데 하필 그 번호가 4번이에요. (연구 참여자 A)

부모 앞에 먼저 간 녀석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가는 것이다... 화장해서 우리 집 선산에 나와 내 안식구 봉분 자리 바로 아래쪽에 묻고 그 위에 나무 심었어. 나이는 먹었어도 시집 안 갔으니 나중에 우리 부부가 데리고 살아야지. (연구 참여자 D)

유난히도 흥시를 좋아하던 아이였어. 16년 되었는데 지금도 가을에 첫 흥시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 (연구 참여자 K)

3) 유형(流刑)의 땅, 정지(停止)된 시간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서 발견할 수 있다. Durkeim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종교적인 조직에 속해 있을수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수록 자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나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스스로가 마음 문을 닫고 자기 안으로만 숨어들었다. 유형의 땅이라는 공간에 스스로를 유배시켜 버렸다.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할 앞으로의 시간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알기 때문에 더욱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식은 혼자 가지 않았다. 부모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간까지를 모두 가지고 가버렸다. 부모의 삶의 시계는 자녀가 떠난 그 순간에 정지되어 버렸다.

(1) 내가 만든 감옥

자살로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낙인화 한다. 세상의 비난보다 더욱 가혹하게 자신을 죄인시 하면서 부모는 유형의 땅에 스스로를 가둔다. 열여섯 살 밖에 안 먹은 철없는 아이가 감히 제 손으로 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줄도 몰랐던 것이 미안하고, 넉넉한 뒷바라지 못해준 것이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부모는 죄책감과 수치감에 세상과 소통하는 관계의 문을 닫고 유형의 땅으로 숨어 들어가 고립화되고 주변화 된다.

이미 내 삶은 폐쇄적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폐쇄된 공간 속에 갇힌거죠. (연구 참여자 A)

누구 있는 거 싫어요. 하다못해 남편도 옆에 있는거 싫어요. 누구도 싫어요. 만사가 다 귀찮고 다 싫어요. (연구 참여자 C)

그놈 가고는 당체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 놈 보기 부끄럽고 동네 창피해서.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면서 '저 집 아들 목매 죽었다고' 쭈군대는 것 같아서... (연구 참여자 G)

(2) 자살에 대한 유혹

자녀를 자살로 보낸 부모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부모보다 자살을 선택할 확률이 6-7배 높다는 선행연구(Jeglic et al, 2005; 박지영, 2010: 205 재인용)와 같이 자녀의 자살은 부모를 제2의 자살로 이끌 수 있다. 부모들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다. 이제 부모에게 죽음은 상실의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더 나아가 죽은 자식과의 재결합을 의미하므로 전혀 두렵지 않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므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부모들은 말한다.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은 자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딸처럼 도시가스 배관에 목을 맬까, 얼마큼 손목을 베어야 확실히 죽을까를 인터넷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래도 손목 깊숙이 긁고 목욕탕 욕조에 담그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거 같애요. 그래도 나는 우리 딸과 같은 방법으로 따라갈 거 예요. (연구 참여자 B)

오늘은 살고 있는데 내일은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견뎌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희망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어요, 부엌칼이 그냥 반찬 만드는 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언제라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 아무지도, 애들 가고 날마다 술만 마시다가 두 달도 안돼서 따라갔죠, 미친 놈.... (연구 참여자 F)

(3) 사라져버린 미래

자녀의 떠나버림은 부모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져가 버렸다. 부모가 떠나면 자녀의 과거가 사라지지만, 자식이 떠나면 부모의 미래가 사라진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녀와 함께 그려 볼 미래가 없다. 부모는 아들이 데려올 며느리감도, 손주의 이름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삶 자체가, 의미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왜 돈을 벌어야하는지, 왜 건강하려고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목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당장 앞에 걸려 죽는다는 선고가 내려지면 더 편안해질 거 같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을 거 같구요. (연구 참여자 A)

딸이 없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요, 17년 동안 가졌던 희망이 그 딸 가고 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아이 있을 때는 '커서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떤 남자친구를 데려올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떻게 키워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었는데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 참여자 B)

4) 고통을 위로받고 싶음

부모노릇을 제대로 못한 자격 없는 부모이지만, 죄책감 수치감을 털어내고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 자살 자녀 부모는 높은 우울증, 정신적·육체적 질병, 결혼생활 파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Rogers et al, 2008: 203)와 같은 결과가 본 연구 참여자에서도 나타나지만, 부모들은 치유를 위해 털

어놓을 곳이 없다. 부모도 필요한 만큼 슬퍼할 수 있어야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므로 마음 놓고 울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다. 부모들은 이제 고통을 털어놓고 위로받아 살고 싶다고 말한다.

(1) 이해받고 싶은 고통

자살 자녀 부모는 '위로받을 권리가 박탈된 부모'이므로 표현되지 못한 고통은 내면화되면서 깊은 육체적 피폐나 정신과적 질환으로 나타나 고통의 심문이 시작된다. 출구가 막힌 상태로 안으로만 감추어진다. 아무도 이해해주려 하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았다.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다른 자식들 때문에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어서 한 밤중에 술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신부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보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도움 청할 곳이 없었다. 내면화된 고통을 안으로 눌러 삼켜야 했던 부모들은 이제 이해해달라고,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말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속 시원히 내 말 할 데가 없잖아. 내 고통스런 감정을 그냥 마구 구겨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쭈셔 넣은 슬픔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울고, 음식 하다가도 울고, 그냥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무슨 비닐 커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런 환영 비슷한 걸 보았어요. (연구 참여자 B)

수녀원도 찾아가 보고, 목사님도 만나보고, 절에도 가보고, 정말 여러 군데 찾아갔다. 전화 상담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데도 말할 곳이 없었다. (연구 참여자 J)

(2) 벌레 보듯 하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음

자살자 부모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감정은 사회적 낙인과 수치감이다. 유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자식의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부모들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부모들이 장례식을 가능한 한 신속 간결하게 치루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살자와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다. 아무도 부모에게 말을 걸려하지 않고, 자살자와 관련되었던 물건은 부정시 한다. 부모들은 제발 편견을 가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세상은 다르게만 본다. 시아버지는 자식 잃은 며느리를 위로하기는 커녕 집안의 수치라고만 한다. 위로받으러 갔던 종교인도 위로해주지 않았고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 죽인 사람 취급만 했다. 사람들은 자식 보낸 부모가 울면 운다고, 웃으면 웃는다고도 트집 잡는다. 제발 뒤에서 쭈근대며 벌레 보듯 하지 말고 보통사람처럼 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성당의 한 친구가 '자기 엄마는 94세에 간 호상에도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 흉상에 사람이 그리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 흉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B)

첫 기일 때 그 불쌍한 것 어디다 기도라도 바쳐 주어야 할 것 같아 절에 찾아갔어요. 기일 불공이 삼십오만원이래서 하고는, 닷새 뒤에 다시 돈 들고 갔어요. 둘째 딸 불공드려주려고, 그랬더니 스님을

비슷한 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벌레 보듯이 쳐다봐요. 내가 두 딸을 다 잡아먹었다는 듯이.....
(연구 참여자 F)

5) 반쯤 께맨 상처로 살아가는 날들

자녀의 자살은 부모 삶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렸고, 부모가 기대했던 삶의 순서를 흔들어 놓았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는 죄책감과 수치감에 자녀를 따라가고만 싶다. 그러나 남겨진 다른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따라 갈 수도 없다. 부모로서의 의무감은 죽고 싶은 자유마저 박탈해버렸다. 남겨진 자녀와의 관계는 또 다시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자녀에게 모진 부모가 될 수는 없었다. 때로 내 목숨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겨진 가족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가족들의 근심어린 시선은 삶이라는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다독인다. 가족과 친구의 지지, 신앙 공동체의 지지는 부모의 망가져가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제자리로 되돌려놓는다. 반쯤 께맨 상처는 금방이라도 터질듯 위태롭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1) 남겨진 자식에의 책임감과 두려움

Durkheim은 자녀를 가진 아버지의 자살방지계수는 자녀를 가지지 않은 아버지의 두 배나 된다고 했다(황보종우, 2010: 219). 즉 자녀는 부모가 살아야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보호요인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겨진 부모가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겨진 다른 자녀 때문이다. 만약 다른 자녀들이 없었다면 이미 자살을 선택해 자식을 따라갔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아들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는 어떻게도 감당이 안 되서 나도 아들처럼 떨어져 죽으려고 엘레베이터를 탔어요. 딸이 잡아요. 그 때에야 “아, 저 아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사람이 아들 장례식장에서 “여보!, 우리 죽지 말고 살아요. 저 딸 위해 죽지 말고 살아 남아요” 했어요. 살아야겠지요.
(연구 참여자 A)

작은 애 때때 살았어요. 맨 처음 일 있고 나서 죽으려고만 하다 생각하니 작은 애 생각이 들어요. 그래, 5년만 더 살아서 작은 애 대학만 보내고 죽어야지, 그러고 또 생각하니 애 군대 갈 건데 군대 갈 때 엄마 없으면 쓸쓸하겠지, 그럼 그 때 까지만 살까?, 한 10년 있으면 장가 갈건데 생각해보니 내가 여자 엄마라도 누나와 엄마가 자살할 그런 집에 딸 안 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C)

(2) 동변상련(同病相憐)⁸⁾

만약 누군가가 ‘가족 모두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죽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정신인 사람들은 그

8)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돕는다는 의미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들은 자기들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공감과 동질감을 느껴 그들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얻는다는 의미이다.

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거 같애'라고 말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가버린 사람 뒤에 남겨지는 것이 어떤지를 알고, 부모가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모두 함께 죽고 싶다는 말을 유가족만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Harper et al, 2011: 208). 자조집단(peer group)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자조집단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구성이므로 '모두가 같은 배를 탔다는 동류의식(All in the Same Boat)'으로 고통을 치유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준다.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눈빛으로, 찢겨진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어갔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동병상련이랄지. 그런데 거기 이년 삼년 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언제 그 시간을 견뎌내나 싶어서요. (연구 참여자 A)

나하고 같은 경험 한 사람들한테서 위로 많이 받아요. 눈 보면 알아요. 눈에 빛이 꺼졌거든요. 당해본 사람끼리는 알아요. 마주치면 우리만 아는 눈빛으로 인사해요. (연구 참여자 C)

자조집단? 그거 나한테 수호천사였어요. 거기 아니었으면 나 진즉 애들 따라 갔을 거예요. (연구 참여자 F)

(3) 세상 속으로 되돌아오기

이제 부모는 가버린 아이를 가슴에 묻고 세상 속으로 나와야한다. 자녀를 단념하고 완전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부모자신의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 부모들이 유형의 땅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했다. 무슨 일 저지를까봐 백일 동안 번갈아가면서 지켜준 친구들, 기일(忌日)에 흰 장미를 보내주고 기도를 올려준 공동체의 힘이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꼭 혈연을 나눈 사람만이 그런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핏줄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서, 아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부모도 있고, 자살 유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부모들은 자신의 한과 아픔을 삭인 후, 승화시켜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시작한 것이다.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은 상처를 억지로라도 꿰맨 후, 타인을 위해 나누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떠난 자식을 위한 진혼(鎮魂)일지도 모른다. 무엇이 부모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내었든 간에 이제 부모들은 세상과의 화해를 시도하면서 자녀 없는 또 다른 삶을 엮어 갈 것이다.

아들을 그렇게 모질게 보내고 나서야 아들이 하고 싶어 하던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이거 제대로 배워서 나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싶어요. (연구 참여자 A)

작은 애 친구 엄마들이 학교로 끌어내주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잠시잠시 잊으면서 산거 같아요. 원하던 원치 않든 정신없이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혼자 방에만 있었으면 이미 애 따라 갔을 거예요. (연구 참여자 C)

모진 게 목숨이라, 그래도 살으려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따순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제.....그렇게 살아져. (연구 참여자 I)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12명 부모의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5개의 본질적 주제는 ‘넋이 나감, 참척죄인, 유형의 땅과 정지된 시간, 고통을 위로받고 싶음, 반쯤 케맨 상처로 살아가는 날들’이다. 이를 현상학적 반성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van Manen의 네 실존체인 시간성, 공간성, 신체성, 관계성에 근거하여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성(lived time)은 시계가 나타내는 객관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 속에서 인식하는 주관적 시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 경험의 시간성은 ‘정지된 생애시간’이다. 연구 참여자인 부모들은 자녀의 자살 사실을 발견한 순간 충격에 넋이 나가버린다. 자녀와 함께 공유했던 16년 혹은 42년 세월의 시간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어떤 남자친구를 데려올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은 무엇으로 지어줄까?” 등 자녀와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사라져 버렸다. 부모를 잃으면 자녀의 과거가 사라지지만, 자녀의 상실은 부모의 미래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제 부모의 삶은 자녀와 함께 할 미래가 사라진 채, 자녀의 자살 시각에 정지되어 버렸다.

둘째, 공간성(lived space)은 길이, 높이, 깊이 등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느끼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남겨진 부모들 삶의 공간성은 ‘유형(流刑)의 땅’이다. 자살자는 유가족의 옷장에 심리적 해골을 넣어두고 떠났다는 Shneidman의 말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자살 자녀의 심리적 해골에 의해 천형(天刑)의 땅이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과의 어떤 소통도 거부하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스스로가 만든 감옥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들은 가족에 의해 더는 상처 받지 않기 위해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각각 남남처럼 살아간다. 이제 가정은 소통이 되지 않는 닫힌 공간이 되었고 깨어질 듯 위태롭기만 하다.

셋째, 신체성(lived body)은 우리가 언제나 세계 속에서 신체를 통해 존재한다는 현상학적 사실을 가리킨다.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성은 ‘넋이 나간 병든 육체’이다. 자녀의 죽음을 발견한 순간의 충격으로 인해 부모의 신체는 광기를 일으키고 상명지통(喪明之痛)의 상황이 된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너져간다. 꿈과 현실이 뒤섞이고 의식과 무의식이 뒤섞이면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기도 한다. 수면부족, 호흡곤란, 가슴 통증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생전 삭아질리 없는 응어리 때문이다.

넷째, 관계성(lived other)은 대인적 공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남겨진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관계성은 '반쯤 껌 맨 상처로 살아지는 날들'이 된다. 자녀의 상실은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부부관계의 위기는 가족해체의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관계를 더욱 응집시키기도 한다. 가족 간 상호염려, 동병상련의 이픔을 겪은 자조집단과의 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했다. 가버린 자식으로 인해 비롯된 세상과의 단절 관계는 가족, 자조집단, 신앙의 도움 등에 의해 조금씩 연결되면서 한걸음씩 세상 속으로 되돌아간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이지만 반쯤 껌 맨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스스로 제 목숨을 거두어 버린 자식을 발견한 순간 부모의 삶은 그 시각에 정지되어 버리고,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부모는 참적 죄인이 되고 부모의 신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너져 간다. 그러나 삶과 세월은 부모들의 끝없는 고통과 한(恨)을 삭이고 삭혀낸다. 살아야 하는 일이 결코 죽음보다 쉽지는 않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에 의해 부모들은 유가족 상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의미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상처를 아물리고 세상과의 화해를 시작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화해와 나눔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5. 함의 및 제언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험을 사회문제적 접근만이 아니라, 한국 가족관계의 특성에 주목하여 문화적 관점에서도 살펴보았다. 자녀의 자살을 경험한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충격, 죄책감, 수치감, PTSD, 자살 유희 등의 애도반응은 서구의 부모와 비슷하게 나타나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구의 부모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아 자살에 대한 책임이 자살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자살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내가 자식을 죽게 만들었다”나 “자식 잡아먹은 어미” 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자살자의 부모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 부모가 되고, 자녀 자살의 책임은 부모의 몫이 되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 가족문화의 특징인 지나치게 밀착된 상호 의존적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구문화는 자살을 한 개인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문화는 자살을 집안체면을 깎는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살을 불효라고 보아 온 우리의 문화적 시선은 부모를 자기 비난과 자기학대에 빠지게 하고, 수치감에 따른 사회적 고립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손녀의 장례식장에 잠시 나타난 할아버지는 “집안 망신이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나?”를 넘어며 며느리를 죄인 취급한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위로보다는 비난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같은 종교의 동료마저 ‘홍상(兇喪)’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쓰고, 자살자 부모를 ‘벌레 보듯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집단문화에서 비롯된 문화적 낙인의 시선이다.

셋째, 서구에서는 자살의 예방과 책임, 유가족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국가주도의 강력한 대책과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살을 한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유가족의 문제도 사회문제가 아닌 집안이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부모들은 “도무지 마음 편히 말할 데가 없다”고, “상담실 같은 데서 도움을 받고 싶었으나 아무데도 없다”고 쏟아내고 있다. 자살자의 부모가 겪어야 하는 문제는 사회·국가적 관심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남아있고 부모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나 국가가 자살과 유가족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의 땅에 갇힌 부모들이 사회적 고립화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최고의 자살 고위험군이므로 부모에 대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11가족 중에서 두 아버지가 2개월과 1년 이내에 자식을 따라갔다. 어머니는 자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목매, 투신, 자해 등의 자살 방법을 상세히 공부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는 가족 중 어느 누구보다도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부모들은 한결같이 오늘은 살고 있지만, 언제 따라갈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자녀의 자살 후 일 년 이내에 부모의 자살시도가 가장 높다는 선행연구(Crosby and Sacks, 2002)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부모들에 대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찰서, 병원 응급실, 자살예방센터 등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살 유가족을 표적집단으로 파악 확보하고, 유가족 특히 부모의 후속자살을 막기 위한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자녀의 자살 직후 부모를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반강제적으로 분리한 후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에게 정신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자조집단에서 얻은 치유의 효과는 지역사회 중심의 유가족 자조집단(self-help group)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자조집단이 수호천사였고, 거기 아니었으면 일찌기 자식 따라갔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이 연계하여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극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자조집단이 전국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살자녀 부모들은 스스로가 어떤 서비스나 대책을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문화적 풍토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앞장서 자조집단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해준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자녀의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자살 자녀 부모를 현장에서 ‘Gatekeeper’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 유가족 상담사 1호인 한 어머니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부모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고, 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담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자살 유가족은 ‘나는 자살 유가족입니다(I’m a survivor)’라는 피켓을 수치심 없이 들고 걸으며 유가족 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일정수준 이상 회복된 유가족을 자살예방을 위한 Gatekeeper, 사례관리자, 자원봉사자로 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가족이 유가족 상담의 ‘Gatekeeper’로 활용될 때 절대공감의 상호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가족은 서비스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제안한다. 본인 보다 늦게 자살을 겪은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상담학을 배우고 있다는 한 연구 참여자가 그에 해당한다. 또한 남겨진 부모에게 가장 힘든 날인 자녀의 기일이나 부모의 생일날을 기억하여 구성원이 함께 그 날을 보내게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에게 심리적 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부모들 스스로가 만족할만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하는 것이 보다 빠른 치유의 방법임을 시사한다. 종교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식의 죽음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의미를 찾아내거나 개인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남겨진 아이의 학교 어머니회 일을 맡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 심리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아버지의 세상과의 화해는 이 논지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는 유가족들이 행복감을 찾기 위해 그들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Klass, 1999; Rogers et al. 2008: 204)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상담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찾게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확보의 문제와 연구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자살 사후 경과에 따라 기간을 세분화하지 못하였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자살 자녀 부모를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애선 역, 2010, 『십자가로의 초대』, Ronda De Sola Chervin, 2008. *The Kiss from the Cross*, 서울: 주심.
- 김열규, 2004, 『한국인의 화』, 서울: 휴머니스트.
-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03-23.
- 배영기, 2006,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송성자, 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신경림 역, 2000,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van Manen,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서울: 현문사.
- 유태균, 2005,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Deborah K., Padgett,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경기 파주: 나남출판.
- 윤명숙·김가득, 2010,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29: 115-148.
- 이근무·김진숙, 2010, “자살자 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09-134.
- 이문희 역, 2004, 『자살의 이해』, Kay Redfield Jamison, 2000. *Night Falls Fast*, 뿌리와 이파리.
- 이범수 역, 2009, 『유족의 사별슬픔: 상담과 치료』, J., William Worden, 2002,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서울: 도서출판 해조음.
- 장혜경, 2008,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서울: 학지사: 133-195.
- 조경란, 2010, 『복어』, 경기: 문학동네.
- 조동걸·한영우·박찬승, 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창비신서.
- 통계청, 2011, “사망원인 통계결과”, <http://www.kosis.kr>
- 황보중우 역, 2010,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Emile Durkheim, 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서

울: 청아출판사.

- Baume, Pierre., 1990, "Suicide: A crisis for the whole family: should suicide survivors be managed differently?", *Preventing Youth Suicide*.
- Cain A. C., 1972, *Survivors of Suicide*, Charles C Thomas Publisher: Illinois U.S.A.
- Callahan, J., 2000,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bereavement in suicide support group participa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104-124.
- Carson, Henry J., 2010, "Dyads of father and son suicide separated by time and circumstances", *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31(1). Crosby, A., and Sacks J., J., 2002, "Exposure to suicide: Incidence and associ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United States", 1994,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2: 321-328.
- Cv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1): 14-21.
- Feigelman, Beverly and Feigelman, William, 2008, "Surviving after suicide loss: The healing potential of suicide survivor support groups", *Illness, Crisis & Loss*, 16(4): 285-304.
- Garvin, C., 1997, *Contemporary Group work* (3r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Fine, C., 1997, *No Time to Say Goodbye Surviving the suicide of a loved one*, New York: Doubleday.
- Harper, M., O'Connor, R., Dickson, A., and O'Carroll, R., 2011, "Mothers continuing bonds and ambivalence to personal mortality after the death of their child". *Psychology, Health & Medicine*, 16(2): 203-214.
- Jordan, J., 2001, "Is suicide bereavement different?: A reassessment of the literatur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1): 91-103.
- Klass, D., 1999, "The Siritual Llives of Bereaved Parents". Philadelphia: Brunner/Mazel: 126-165
- Knieper, A., 1999, "The survivor's grief and recover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 353-364.
- Leathy, J., 1992, "A Comparison of depression in women bereaved of a spouse, child, or a parent". *Omega* 26: 207-217.
- McIntosh, J., 1992, "Control group studies of suicide surviv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46-161
- Mitchell, A., Sakraida, T., Kim, Y., K., Bullian, L., and Chiappetta, L., 2009,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1).
- Peters, J., 2006, "Bereavement after a suicide a survivor's perspective". *Spirituality and earth International*, 7: 80-87.
- Pompillili, M., Lester, D., De-Pisa, E., Del-Casele, A., Tatarelli, R., and Girard, P., 2008, "Surviving the suicides of significant others",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uicide and Crisis Studies* 29(1): 45-48.
- Reed, M., and Greenwald, J., 1991, "Survivor victim status: Attachment and sudden death bereave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1: 385-401.
- Rogers, C., Floyd, F. J., Seltzer, M. M., Greenberg, J., and Hong, J. K., 2008, "Long-term effects of

the death of a child on parents' adjustment in mid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03-211.

Worden, J.,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New York: Springer.

Experiences of Parents as Suicide Survivors

Kim, Ka Duc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ress the experiences of the parents who lost their children by suicides in their own word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by van Manen(2000)'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analysis of the words express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led to the following five fundamental themes. These are 'broken heart, sinner's grief, land of exile and time stood still, pains to be comforted, and days ahead with half-stitched wounds'.

Several distinctions are found due to cultural differences from Korean parents. First, whereas the Western parents see the cause of their child's suicide as his/her independent issue, the Korean parents blame themselves entirely. This may have stemmed from the overly inter-dependency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 Second, whereas the Western perspective views the suicide as a type of illness from the individual's depression. The Korean perspective views the suicide as a shame that disgraces the parents or the family. This negative social perspective intensifies the self-blame and social isolation. Third, the Westerners recognize the prevention and responsibility of suicide resting with the society and government, but the Korean society recognize suicide as personal or family matter. Based on the finding above, I proposed a number of practical measures to aid the surviving parents who belong to a group with extremely high suicidal rates.

key words: suicide survivor, parental experiences, hermeneutic phenomenology

[논문 접수일 : 12. 02. 15, 심사일 : 12. 03. 21, 게재 확정일 : 12. 05. 7]